

시멘트의 海外市場

動向과 輸出展望

韓國生産性本部
研究所

孫 明 煥

1. 序

시멘트가 建設資材로서의 重要性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시멘트工業이 갖는 基幹産業으로서의 性格때문에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政府의 積極的인 保護, 育成에 힘입어 飛躍的인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우리나라는 解放以後 每年 相當量의 시멘트를 輸入에 依存해 왔으나, 東洋最大의 雙龍·東海工場(年産 170萬%)이 1968년에 竣工을 보게 되어 드디어 우리나라는 시멘트 自給體制의 確立은 勿論 從前의 시멘트輸入國에서 輸出國으로 轉換케 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繼續되는 星信化學, 高麗시멘트의 新設 및 既存工場의 增設로 因해서 시멘트生産은 生産過剩에 이르러 1970년에는 70萬%, 1971년에는 80萬% 程度의 輸出餘力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0年和 1971년에는 生産過剩으로 70~80萬%程度의 輸出餘力을 갖게 될 것이 거의 確實視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輸出第一主義를 標榜하고 있으면서도 輸出商品의 大宗이 없는 實情에 있으므로 外貨稼得率이 極히 높은 시멘트의 輸出은 一面 當爲일 수도 있다.

한편 시멘트業界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借款의 元利金償還을 爲한 外貨稼得이 必要하다는 點에서 시멘트輸出에 따르는 問題點도 없지는 않지만 시멘트 輸出 增大를 爲해 最大의 努力을 다해야 할 處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

서 既存市場의 維持 및 擴張은 勿論 새로운 市場의 開拓이 急先務이며 또한 市場開拓을 爲해서 正確한 海外市場動向과 對應策을 發見함이 重要하다.

2. 시멘트輸出 可能地域의 動向과 展望

世界的으로 시멘트 生産은 需要의 增加와 더불어 繼續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後進國의 建設需要가 增加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繼續 시멘트 生産은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地域別로 1968年の 輸入量과 輸出量을 比較해 보면 유유럽(輸出量 8,750千%—輸入量 5,750千%=輸出餘力 3,000千%), 소련(2,350千%—200千%=2,150千%), 極東(3,900千%—750千%=3,150千%)의 3個 地域만이 輸出餘力을 갖고 있고 그 외의 地域은 輸入量이 輸出量을 超過하여 他地域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는 重量品이라는 屬性때문에 運賃이 過重하므로 輸出可能地域을 一次的으로 우리나라의 近接地域에 限定시켜 考察해 보기로 하자.

(1) 東南아시아

아시아의 시멘트 市場을 東南아시아, 西南아시아, 西아시아, 極東의 4個地域으로 나누어 보면(但 區分基準은 「유유럽」 시멘트協會의 方法임) 그중에서는 東南아시아가 가장 큰 시멘트市場이며 同地域은 他地域에 비해 韓國과는 近接地域이므로 運賃이 低廉하다는 등의 利點 때문에 가장 좋은 시멘트 輸出市場으로 擡頭되고 있다.

1968年度の 경우를 보더라도 同地域의 輸入量은 290萬%, 輸出量은 40萬%로 最少限 250萬%以上을 他地域으로부터의 輸入에 依存 하였으며 또한 尠大한 潛在需要가 있는 同地域은 越南戰의 終結豫想과 이에 따른 開發 需要의 急速한 增加와 더불어 시멘트輸入은 年年 增大될 것이 豫想된다.

同地域의 主要輸入國은 越南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캄보디아 등이며 國別로 시멘트 <表 1>

越南의 시멘트 需給實績

<單位: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 9 6 6	141	(1,350)	—	(1,491)	(90)
1 9 6 7	(175)	(1,200)	—	(1,375)	(75)
1 9 6 8	(175)	(1,500)	—	(1,675)	(96)

資料:「유니럽」시멘트協會刊, CEMBUREAU 1969.

註:()안은 部分的 推定值임.

멘트 消費量은 1,675千%인데 反하여 生産量은 175千%로 消費量의 $\frac{1}{10}$ 程度여서 나머지 不足量 1,500千%를 모두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越시멘트輸出實績은 1964年 19,720%, 1965年 40,329%, 1968年 6,000%이며, 1969年 9月末 現在 234,900%를 輸出했고 今年末까지 316,570%를 輸出할 計劃이다.

앞으로의 對越시멘트輸出展望을 보면 同國은 1968년에 150萬% 程度의 시멘트를 輸入한 큰 시멘트市場으로서 越南戰이 終熄된다고 하더라도 戰後의 復興需要와 至今까지의 輸入增加趨勢를 勘案해 보면 每年 10~15萬% 以上の 輸入需

<表 2>

인도네시아의 工場別 시멘트 生産計劃

(單位:千%)

年度	工場別	Gresik	Indarung	Tonassa	Tjibinong	計
1968/69		375	120	20	—	515
1969/70		400	120	80	—	600
1970/71		400	175	100	—	675
1971/72		510	220	120	—	850
1972/73		510	220	120	400	1,250
1973/74		510	220	120	400	1,250

資料: KOTRA

同國의 시멘트自體增産計劃으로는 西部자바의 Tjibinong에 年産 40萬% 規模의 工場을 1972/73 年中에 新設할 豫定이며 既存工場을 擴張하는 計劃이 推進되고 있을 程度이다.

트 工業의 概況과 韓國의 輸出展望을 보기로 한다.

越南의 시멘트工業은 現在 Ha Tien Cement Company가 唯一의 工場이며 生産量은 1967年과 1968년에 175千%로 推定된다.

앞으로 Long Tho (埋藏量 5,000萬%)과 Hiep Than (埋藏量 4,000萬%)의 豊富한 石灰石 鑛床을 開發 利用할 新工場 建設을 計劃하고 있으나 아직 未着工狀態에 있다. 同國의 1968年度 사

要 增加가 豫想된다.

그 外에越南派兵以後 1966년부터는 對·越南 시멘트軍納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韓·越間의 交易擴大傾向을 考慮에 넣는다면 輸出競爭國인 日本·台灣에 比해 우리나라는 比較的 有利한 位置를 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멘트 輸出市場中에서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할 國家이다.

인도네시아에는 現在 3個의 시멘트生産工場이 稼動되고 있지만 實際國內生産量은 40萬% 程度에 不過한 보잘 것 없는 시멘트工業을 保有하고 있다.

그런데 現在 인도네시아 政府當局에서는 同國의 시멘트 年間需要量을 150萬%로 推算하고 있으며 殘餘 約 100萬%를 輸入하고 있는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主要輸入 對象國은 日本, 싱가포르

폴(主로 蘇聯產 시멘트의 中繼輸出입), 中共, 香港, 台灣, 北傀 等이며 特히 日本의 對인도네시아 市場占有率은 60%以上으로 壓倒的이다. 한편 同國에 對한 우리나라의 시멘트 輸出實績은 今年이 처음으로 1969年 9月末現在 1萬%이다.

需要展望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1人當 시멘트 消費量은 10kgs程度로 極히 낮은 水準에 있어서 同國의 시멘트潛在需要는 龍大하며 未開發地域이 많은 만큼 시멘트輸出市場으로서의 可能性도 크다. 特히 今年 4月부터 始作된 5個年開發計劃에 依하면 灌溉事業·댐工事·道路·港灣工事·住宅建設에의 投資가 強調되고 있으므로 시멘트 需要量은 大幅 激增될 것이 豫想되기 때문에 上述한 同國의 自體增產計劃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5年間은 相當量의 輸入需要增大가 展望된다.

그러나 시멘트輸出競爭은 곧 運賃競爭이라 할 수 있는데 台灣은 地理적으로 近接地域이라는

<表 3>

싱가폴의 시멘트 需給實績

(單位: 千%)

年 度	生 產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
1 9 6 6	382	421	32	571	298
1 9 6 7	471	486	31	724	370
1 9 6 8	500	(500)	(30)	(750)	(378)

資料: CEMBUREAU

註: ()內는 推定值

年間 50~55萬%이다.

特히 同國의 시멘트輸入은 生産이 軌道에 오른 1966年 9月以後 輸入稅를 新設하여 (시멘트에 對해서 12 S.\$, 크링카는 6 S.\$) 그 後 시멘트製品의 輸入은 完全히 停止되고, 粉碎·袋詰하여 使用하는 크링카만을 大部分 3社의 資本供與國인 日本·臺灣 및 말레이시아에서 輸入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同國의 시멘트消費量은 漸増하고 있으며 最近年間 75萬% 前後로 推定된다. 더욱이 政府의 道路·港灣 等の 整備 擴張工事, 政府住宅公團의 低·中所得者層을 위한 低家賃住宅·建賣住宅의 建築 뿐만 아니라 民間部門의 建築「붙」으로 시멘트需要는 旺盛하다.

우리나라는 크링카를 1968년에 1萬%, 1969年 9月末 現在 65.9千%를 輸出하였고 今年末까지는 30.6千%를 더 輸出할 計劃으로 있다.

利點이 있고 日本은 各社가 自體의 시멘트 專用 船을 活用, 適期 Delivery와 小量注文에 應할수 있으나 反面 우리 處地는 그러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1967年度에 約 2億 1968年度에는 約 3億5千弗을 日本 및 西方各國으로부터 援助받고 있고 (長期借款) 앞으로 同援助가 繼續될 것으로 보이는 바, 同國의 立場에서는 援助國의 援助金中에서 輸入함이 가장 有利한데 特히 最大援助國은 日本으로서 円借款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시멘트 輸出競爭國인 日本·台灣과의 競爭隊列에서 뒤지지 않을려면 輸出價格의 大幅의인 引下 및 시멘트 延拂輸出等 特別한 對策을 講究치 않는 限, 同國의 輸入需要 增加만으로 對 인도네시아 시멘트輸出을 樂觀할 수 만한 餘를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의 시멘트 maker 는 3個社로 生産量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對싱가폴 크링카輸出價格은 %當 F.O.B \$6.50 (C & F \$10.50)이며 이를 시멘트價格으로 換算하면 F.O.B \$10.00 에도 未達하여 對싱가폴 크링카輸出은 輸出價格上 考慮할 問題點이 있다.

한편 타일랜드의 경우를보면 1967年末 現在 시멘트 maker 는 Siam 社와 Jala pratham社의 두 개의 工場이며 그 生産量은 每年 着實히 增加하여 1968년에 215萬%를 生産한 것으로 推定된다. 同年의 輸入量은 20萬%程度이나, 現在 日本과의 合作시멘트工場 (生産能力 年產 30萬%)이 完成段階에 있어 1970年度에는 타일랜드도 輸出餘力を 갖게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對타일랜드 輸出可能性은 稀薄하다.

(2) 西南아시아

同地域의 시멘트需給을 보면 消費量과 生産量 모두 增加 趨勢를 보여 1968年度에는 消費量

<表4>

타일랜드의 시멘트 需要實績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966	1,476	262	45	1,553	49
1967	1,736	316	28	1,960	60
1968	(2,150)	(200)	(30)	(2,250)	(67)

資料: CEMBU REAU

1,550萬%, 生産量 1,475萬%로 不足量 155萬%를 輸入하고 있다. 그런데 輸出量 35萬%를 모두 同地域內에 輸出되었다고 하더라도 他地域으

로부터의 輸入량은 最少限 120萬% 임을 알 수 있다.

1人當 시멘트 消費량은 22kg程度의 低水準에서

<表5>

西南아시아의 시멘트 需給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966	13,300	1,250	—	14,500	22
1967	13,850	1,350	200	14,400	21
1968	14,750	1,550	350	15,500	22

資料:

앞으로 同地域의 시멘트需要는 繼續 增加할 것이 豫想된다.

특히 印度의 小規模 시멘트輸出을 除外하면 同地域의 모든 國家가 시멘트輸入國이며 隣接한 시멘트輸出國이 없음을 勘案할 때, 이를 同地域이 東南亞보다는 遠距離에 位置하고 있으나 過重한 運賃負擔의 不利點을 어느程度 「커버」 할

수 있는 要因으로 보면 同地域에 對한 우리나라의 輸出展望은 比較的 밝은 편이다.

主要시멘트 輸入國의 1968年度 輸入規模는 파키스탄 130萬%, 세이론 18萬%, 버마 4萬%이다.

1968年 8月 現在 파키스탄의 시멘트工場은 9個인데 그 중 8個가 西파키스탄에 있다. 生産은

<表6>

파키스탄의 시멘트 需給實績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966	1,848	(850)	(—)	(2,698)	(26)
1967	2,040	(1,200)	(150)	(2,500)	(23)
1968	2,280	(1,300)	(190)	(3,000)	(25)

資料: CEMBUREAU

年年 增大하고 있지만 需要를 充足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여 殘餘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自體增産計劃으로는 西파키스탄 産業開發公社(WPIDC)에서 建設中인 白色시멘트工場, 1969年에 稼動豫定으로 Kohat에 建設中인 年産 18萬%의 Project., Taxila의 近郊에 建設 豫定인 日産 1,400%의 工場 등이 있다.

그런데 1人當 시멘트消費량은 25kg으로 低位에서 第3次 5個年計劃의 進行과 더불어 시멘트 需要의 激增이 豫想되므로 上述한 自體增産計劃

에도 不拘하고 向後 몇年間은 最少限 100萬% 이상의 輸入需要가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버마의 시멘트工業은 年産 4~6萬%의 舊式工場과 東獨이 最近 建造한 年産 10~12萬%의 2個工場이 있으나 施設의 老朽化와 技術上의 難點으로 100%稼動을 못하고 있다.

輸入規模는 最近 4萬%程度로 推定되나 現在 버마는 甚한 外貨不足으로 物資輸入을 極度로 制限하고 있고, 또 財政難으로 新規工事は 中止하고 있어 시멘트需要增加의 可能性이 없는 데

<表 7>

버마의 시멘트 需給計劃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 9 6 6	(120)	(150)	(—)	(270)	(11)
1 9 6 7	132	(40)	(—)	(172)	(7)
1 9 6 8	(170)	(40)	(—)	(210)	(8)

資料: CEMBUREAU

다가 시멘트 增産을 爲해 470萬弗을 投資하여 擴張工事を 進行中이어서 對버마 輸出展望은 호리다.

(3) 西아시아

同地域의 1968年度 시멘트輸入量은 250萬%, 輸出은 135萬%로 推算되어 最少限 120萬%程度는 他地域으로부터 輸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地域은 스에즈運河 閉鎖의 影響으

<表 8>

西아시아의 시멘트 需給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 9 6 7	10,650	2,250	1,200	11,900	131
1 9 6 8	11,900	2,500	1,350	13,200	142

資料: CEMBUREAU

로 東歐시멘트의 入手가 困難하기 때문에 最近 日本 等に 對한 輸入依存度가 急速히 높아지고 있다.

同地域中 最大輸出國인 이락은 1968年度에 100萬%을, 이스라엘은 17萬%를 輸出한 것으로 推

定된다.

한편 最大의 輸入國은 쿠웨이트로서 시멘트의 國內生産이 全無하여 消費量의 全部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石油收入에 依한 國民經濟의 急速한 發展으로 대대적인 建築붐을 타

<表 9>

쿠웨이트의 시멘트 需給

(單位: 千%)

年 度	生 産 量	輸 入 量	輸 出 量	消 費 量	1人當消費量 (kgs)
1 9 6 7	—	(1,250)	—	(1,250)	(2,404)
1 9 6 8	—	(1,300)	—	(1,300)	(2,364)

資料: CEMBUREAU

고 需要量은 每年 增加하고 있다.

그런데 1967年中 同國에 對한 主要供給別 市場占有率은 이락 36.1%, 소련 16.7%, 中共 15.3%, 日本 10.7%, 대만 0.8%였으나 1968年 日本의 國別시멘트輸出은 쿠웨이트가 第1位를 占하고 있는 것을 보면 日本에 對한 輸入依存度가 높아져가고 있다.

同國에 對한 우리나라의 進出展望은 過重한 運賃負擔이라는 不利點을 「커버」해 줄 適切한 支援策만 이루어진다면 大量의 輸出도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에 다음가는 큰 輸入國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1967年과 1968年에 는各

各 46萬%, 58萬%의 輸入實績을 보이고 있으며, 同國에의 進出 역시 運賃面의 支援이 있다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4) 其他 地域

前述한 外의 輸出可能地域으로는 濠洲, 東아 프리카 및 南美西岸國들을 考慮해 볼 수 있다.

濠洲의 시멘트工業은 現在 17個 工場이 各地에 散在하여 있으나 需要地域이 멀리 떨어져 있어 運送費로 因한 地域別價格差가 甚하고 高賃金水準으로 製造原價가 높아서 시멘트價格이 높은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시멘트需要는 年年 增加하고 있으나 國內시멘트産業의 擴張은 困難

한 實情에 있다.

輸入規模는 1967年 13萬%, 1968年 16萬% 程度이며 主輸入先은 日本, 臺灣이어서 韓國의 進出도 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東아프리카地域도 스에즈運河 閉鎖가 繼續되는 동안은 同地域에 대한 우리나라의 輸出이 悲觀的인 것만은 아니다. 1968年度 國別 輸入規模는 리유니온 125千%, 탄자니아 115千%, 수단 70千%, 모리타니아 67千% 말라가시 61千%이며 輸出國은 쾨야로 1968년에 302千%의 實績을 보였다.

<表10>

日本の 시멘트 需給

(單位: 千%)

區分	年度	1966	1967	1968	前年比(%)
年 初 在 庫		496	578	675	116.8
生 產		38,265	43,255	47,680	110.2
輸 出		1,619	2,076	1,908	91.8
		(22,816千弗)	(30,560千弗)	(27,175千弗)	(88.9)
內 需		36,564	41,082	45,050	109.7
年 末 在 庫		578	675	1,397	207.0

資料: 日本通商省刊, 通商白書 1969.

(註): () 內는 金額임.

數量으로는 7.8%, 金額으로는 11%가 減少한 理由는 前年 首位였던 韓國의 輸入이 49萬%에서 10萬%로 激減했을 뿐 아니라 向後는 日本에 대한 強力한 輸出競爭國으로 擡頭되고 있는 臺灣, 필립핀 등의 시멘트工業發展이 顯著하여 主輸出市場인 東南亞市場에서 日本과 競爭되고 있으며 또한 近年 東南亞諸國은 시멘트自給體制가 整備되고 있어 輸入需要가 減少한데에 基因한 것이다. 이러한 動向에 비추어 앞으로의 輸出規模도 擴大는 期待되지 않으며 越南의 復興需要를 勘案, 1968年과 同水準인 200萬% 程度가 되리라는 見解가 有力하다.

시멘트輸出을 위해 日本政府는 海上運送의 強化와 船賃의 輕減, 工業規模의 適正化, 操業改善을 通한 코스트引下 등을 圖謀하고 있으나 動亂等の 特殊한 時期를 除外하면 시멘트의 大量輸出은 無理라는 생각에서, 從來의 製品輸出에서 技術輸出, 資本輸出로 輸出方向의 轉換을 模索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968年度 日本의 國別輸出은 쿠웨이트가 首位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트루살, 예멘, 카달에

南美西岸國들은 우리나라와는 너무 遠隔地에서 시멘트輸出은 不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3. 輸出國의 競爭實態

(1) 日本

日本은 蘇聯, 美國 다음가는 世界 第3位의 시멘트生産國으로서 1968年の 生産量은 4,768萬%에 達하며, 또한 世界 第1位의 시멘트輸出國으로 君臨하고 있다. 輸出量은 1966년에 162萬%, 1967年 208萬%, 1968년에는 191萬%의 實績을 보였는데 1968年の 輸出은 前年에 比하여

의 輸出이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스에즈運河閉鎖에 基因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輸出增加는 日本에서의 円借款과 公共事業의 活潑 때문이며 캄보디아도 2.5배의 增加를 보였다. 反面 韓國, 越南, 오거나와, 필립핀에서는 減少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輸出은 輸出入去來法에 의한 Maker Cartel을 結成하여 秩序있는 輸出을 하고 있다.

◎ 臺灣

現在 臺灣의 시멘트工場은 10個이며 1968年の 生産量은 422萬%인데 그中 97萬%을 輸出하여 生産量中 輸出이 갖는 比重이 매우 큰 것이 特徵이며, 日本·벨지움·西獨 다음으로 世界 第4位의 시멘트輸出國의 地位에 올라 있다.

主要輸出對象國은 越南,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북브르네오 등 主로 東南亞와 中東이며, 이곳에서 地理的 隣接성과 價格條件때문에 日本과 競爭的 位置에 서 있다.

앞으로의 展望은 生産量은 1969년에 450萬%, 1970年 590萬%로 豫想되며 輸出量은 100~120萬%程度로 보고 있다.

輸出競爭國의 輸出實績

(單位: 萬)

國別	年度別	1964	1965	1966	1967	1968
韓 國		35,149	139,035	163,409	206,592	283,867
台 灣		881,667	679,761	1,136,760	1,124,947	971,077
日 本		1,721,842	1,531,280	1,533,664	2,137,902	1,961,210

資料: 1. 韓國洋灰工業協會 2. 台灣水泥工業同業公會 3. 日本 시멘트 年鑑 1968

4. 시멘트輸出에 따르는 問題點

첫째, 시멘트生産의 主原料인 石灰石은 世界各地에 散在하여 있기 때문에 主輸出市場이 東南亞 各國이 시멘트自給體制로 漸次 轉換되고 있어서 輸入需要가 減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日本과 台灣은 同地域에 서로 競爭的인 位置에 있으며, 여기에 이제 새로이 韓國이 輸出을 戒한다면 競爭의 激化가 豫想되어 市場開拓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시멘트는 重量品이기 때문에 시멘트輸出競爭=運賃競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海運業의 未發達과 海運施設의 未備로 아직은 도저히 日本·台灣과는 競爭의 敵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隣接地인 東南亞에 輸出함이 有利할 것이나 上述한 첫째의 理由로 相當量을 他地域에 輸出해야 할 것이다. 問題는 遠距離 輸送에 따른 過重한 運賃負擔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을 가 하는 點이다.

아무튼 輸出對象地域의 遠·近을 不問하고 시멘트輸出競爭에는 運賃切下를 위한 海運施設의 擴充과 시멘트專用船 等の 確保는 꼭 必要한 것이다.

셋째, 經營合理化에 依한 原價切下로 輸出競爭力의 強化를 戒해야 할 것이나 國內 各種 物價 및 人件費가 上昇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시멘트業界는 他人資本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서 國內販賣原價는 勿論 輸出原價의 切下가 어려운 反面 海外에서는 競爭의 激化로 시멘트의 國際價格이 下落傾向을 보이고 있다.

넷째, 以上の 隘路를 打開키 위한 方法으로 우선 考慮할 수 있는 것이 赤字輸出이지만, 輸出에 따른 業者의 損失을 어떤 方法으로 補償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그 方法으로는

政府가 補償金 또는 其他 特惠로 補償하는 方法과 다음은 國內販賣價格을 輸出損失分만큼 높게 策定하는 方法等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런데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본다면 赤字輸出의 補償은 시멘트輸出業者의 利益保障을 爲해 國內消費者내지 全體國民에게 負擔을 지우는 結果가 되어 시멘트輸出 그 自體에 조차 懷疑를 가질 수 있다.

여섯째,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그것이 어떠한 生産計劃上의 蹉跌에서 甦든 아니면 시멘트工業 育成方向의 錯誤에서 甦든간에 相當量의 生産過剩 段階에 處해 있음은 事實이다. 따라서 操業을 短縮하던지 아니면 赤字輸出이라도 甘受하던지 하는 兩者擇一의 立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結 言

앞으로 몇년동안 豫想되는 生産過剩量을 操業短縮에 依한 消極的인 方法으로 解決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Dumping에 依한 出血輸出은 業界의 現實로서는 不可避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輸出缺損을 補償하는 適切한 對應策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70~80萬% 程度의 輸出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對應策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一時的 難關을 打開하는 政策에의 範圍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시멘트輸出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現在 國內시멘트業界의 原價切下가 急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限 現在 着工 내지 計劃된 것보다 더 以上으로 生産施設의 新設 및 擴張은 시멘트의 赤字輸出을 더욱 擴大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므로 慎重한 配慮가 要求된다.